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순종의 사람 나아만      성경: 열왕기하 5장 14-19절

Tag: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립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립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립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왕하5:14-19)

당시 암몬은 이스라엘 보다 강대국.

나아만은 암몬의 군대장관으로 암몬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나아만에게는 문둥병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몹쓸 병에 걸렸지만, 지위를 잃거나 가정을 잃거나 지휘력을 잃거나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가 그 나라에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고 있었다.

그 여종이 ‘주인 어른께서 우리나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말하였다.

놀랍게도 나아만은 그 말에 순종한다.

엘리사의 집 앞에 선 나아만은 엘리사의 종으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처방을 전달 받는다.

각종 예물을 가득 싣고 부하들을 대동하고 온 나아만 으로서는 결코 상상하지 못한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적국의 수장을 고치는 일이 달갑지 않았다. 그가 병으로 군대장관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 화를 내고 그냥 돌아 갈테면 가라고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 왔으니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처방을 전달해 주지 아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자를 통해서 처방만은 전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아만은 먼길을 오느라 고생도 했지만, 이처럼 문전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고향 다메섹에는 요단강 보다 더 크고 좋고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mana(어머니)강과 바르발(발발)강에서 씻으면 얼마나 간지가 나겠는가? 이로 보건데 나아만은 대단히 외모와 형식과 명예를 중시하는 자다. 비록 문둥병에 걸리긴 했지만 결코 품위를 잃을 짓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고 상황과약을 하는데 빠른 사람이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간파하는 사람이었다.

곁에 있던 나아만의 종들이 이보다 더 큰일도 시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들의 말에 순종한다.

종들의 말인데 순종한다. 왜냐면 합리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 좁스러운 자들처럼 무조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우기는 자들과는 다르다. 이런 속 좁으면서 겸손할줄도 모르는, 겸손과 비굴을 혼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나아만은 그 은혜를 제대로 수용해서 복을 받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지를 깊이 간파해야 한다.

성경에는 나아만의 주변에 왕들의 말과 종들의 말이 대비된다. 왕들은 엉뚱하며 위세만 떨며, 정치적으로 해석한 말만 한다. 그러나 종들은 치유에 집중하는 말을 한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집중한다.

말에는 경중이 있다. 과장과 진실이 있다.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자기의 취향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순종이라는 덕목, 순종이라는 품격, 순종이라는 영성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덕목으로서의 순종, 품격으로서의 순종, 영성으로서의 순종)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병이 나은 후 깊이 깨닫고 다시금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는 과시용이 아닌,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거부한다. 예물을 받지 말아야 함이 아니라, 나아만의 경우에는 감사의 표시가 예물로 값음이 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함이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치유를 개인적인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인 대사,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였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요구한 셈이다.

나아만은 눈치가 빠른 사람, 그는 굳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흠한 바리를 달라고 한다. (돌아가는 길에 아무 곳에서나 썩 가면 될 것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침략하지 말라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흠을 지키는 수호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흠을 가져간 이유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굳이 엘리사에게 흠을 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을 맹세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복은 순종의 사람에게 임한다.

신분 상승도 순종의 사람에게 임한다.

문제 해결도 순종의 사람에게 임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순종이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